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 분석*

김미애** 윤재희***

An Exploration of Multicultural Concepts in Bestselling Children's Picture Books

Kim, Miai Yoon, Jae Hui

본 연구의 목적은 2008~2014년 사이 국내 베스트셀러 그림책 98권의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 협력 등 6가지 범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은 협력, 정체성, 문화 및 다양성의 순이었으며 반편견과 평등 등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둘째, 국내작가 그림책보다 국외작가 그림책에서 다양성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문화 관련 내용 중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셋째, 환상동화와 생활동화가 6가지 범주의 다문화교육내용을 고르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림책들이 편중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루고, 비판적이며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주류의 관점을 반영하며,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상적 요소를 통한 은유적인 다문화개념을 내포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 베스트셀러 그림책, 다문화 교육내용, 다문화 교육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조성비에 의한 것임

** 제 1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miaikim@cu.ac.kr)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jaehui_yoon@ynu.ac.kr)

I. 서론

유아를 대상으로 출간된 문학작품의 수와 규모는 유아문학의 중요성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14년도 출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간 발행 종수 47,589종의 15.27%인 7,269종이 아동도서이며 전체 신간 발행 부수의 27.79%를 아동도서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에서 유아문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갑작스러운 현상이기보다 꾸준하게 이어져왔다. 선안나(2010)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의 유아 및 아동도서 출판부수는 97%, 발행종수는 148%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 시기 유아 및 아동도서가 양적으로 내용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유아 및 아동도서 중 특히 그림책은 글과 삽화가 결합된 형태의 문학매체로서 유아문학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aber는 그림책을 텍스트이자 삽화이면서 총체적 디자인이며 하나의 제조물품이면서 상품이고 사회적·문화적 역사적 기록물이며 아동 최초의 경험물(Sipe & Pantaleo, 2010, 재인용)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Morgan(2009)은 그림책의 삽화가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많은 자극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결합을 통해 인간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영유아는 그림책을 통해 여자와 남자, 성인과 어린이, 인종 등 다양한 종류의 인간에 대한 표상을 경험하게 된다. 다양한 문화 및 인종의 특성을 담고 있는 그림책은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아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시 말하면, 그림책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Mendoza & Reese, 2001).

1990년대 후반 이후 시작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생활경험, 전통, 역사, 가치관, 세계적 관점, 다양한 집단의 문화 및 이들의 관점을 다루는 문학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제 타인의 생활과 나와 다른 집단의 문화를 보여주는 도서가 증가도 이러한 변화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다문화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그림책이 다수 출간되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어린 시기부터 형성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Derman-Sparks와 Edwards (2010)에 따르면 유아기는 발달에 있어 개인적 혹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명시적·암묵적 메시지를 통해 성, 인종, 장애 등과 관련된 개념을 구성하는 시기이다. 특히 유아는 힘 혹은 권력이 사회적인 특권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는 자신들이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문학작품 역시 영유아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자신의 일상을 묘사하는 문학작품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나와 다른 집단의 문화를 보여주는 도서를 통해 다양성 및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학적 경험은 유아에게 타인과의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든다(민경록, 2008).

다문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그림책은 물론 유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림책은 다양한 문화를 비춰주는 거울(mirror)이자 창(window)의 역할을 한다(Bishop, 1997). Cambell(2010) 역시 문학작품이 영유아가 소속된 문화의 여러 차별화된 가치, 삶의 방식, 신념과 경험 등을 반영하는 중

은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면 그림책 내용의 분석은 영유아들에게 기존의 사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체계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Baker-Sperry & Grauerholz, 2013).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선행문헌은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측면으로 그림책을 분석한 바 있다(권영희, 2012; 김정화, 김봉선, 강은진, 2009; 서정숙, 정진, 2007; 신세니, 조희숙, 2009a,b; 현은자, 정혜미, 2011; Boutte, Hopkins, & Waklatsi, 2008; Roper & Clifton, 2013; Yoo-Lee, Fowler, Adkins, Kim, & Davies, 2014). 이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그림책이 여전히 주류 중심의 시각, 성별 평등, 편견 등의 관점이 혼재되지만 선별된 다문화교육 관련 그림책의 활용이 긍정적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즉, 그림책은 유아의 정체성 확립, 문화에 대한 이해, 편견 및 차별의 탈피, 양성평등 및 다원화된 시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매우 매력적인 교육매체인 것이다.

그림책의 영향력에 근거하여 다수의 연구자들(권영희, 2012; 김정화 등, 2009; 정대련, 2005; 서정숙, 정진, 2007; 신세니, 조희숙, 2009a,b; 현은자, 정혜미, 2011; Boutte et al., 2008; McCabe, Fairchild, Grauerholz, Prescosolido, & Tope, 2011)은 그림책의 내용을 다문화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정대련(2005)과 유순이, 구태미 그리고 윤재희(2014)는 그림책에 표상된 젠더를 분석하여 성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젠더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들, 즉 장애아, 노인, 조부모 등이 그림책에서 주변인 혹은 소외자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권영희, 2012; 김정화 등, 2009; 서정숙, 정진, 2007; 신세니, 조희숙, 2009a; 현은자, 정혜미, 2011). 인종과 타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책을 분석한 정지현과 박선미(2009)의 연구는 분석대상 그림책 28권 중 75%인 21권이 백인 중심 혹은 주류(mainstream) 관점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Yoo-Lee 등(2014)은 다문화 그림책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세 개의 인종집단이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 지 분석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비전통적 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분석한 시도도 있다(신세니, 조희숙, 2009b; 윤갑정, 지은주, 이해은, 200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에서 판매된 그림책 중 베스트셀러로 집계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베스트셀러 그림책에서 나타난 다문화 교육내용을 그림책의 일반적 특성인 작가의 국적과 장르에 따라 분석했다. 2014년 기준 위키피디아 정의에 의하면 베스트셀러란 큰 인기를 보이는 책으로 특정 기간 동안 높은 판매를 나타내는 도서를 말한다. 그림책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지만 창작 및 선택의 과정에서 유아의 선호 및 성인의 개입과 영향 등 복합적인 맥락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구매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김민정, 현은자, 정지영, 2014). 따라서 베스트셀러 그림책이 주요 독자의 호응이나 문학적·교육적 가치를 당연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베스트셀러 그림책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접할 확률이 매우 높은 중요한 문학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이 교육의 명시적·잠재적 전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다문화 그림책이라고 분류되는 그림책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그림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적으로 영유아의 일상에 내재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문화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중적 선호에 의해 선택된 문학작품들이 유아의 다문화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책을 활용한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활성화와 그림책을 활용하는 교사 및 부모에게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1. 2008~20014년 사이 판매량이 높았던 유아용 도서에 나타난 유아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어떠한가?
2. 2008~20014년 사이 판매량이 높았던 유아용 도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작가의 국적에 따라 어떠한가?
3. 2008~2014년 사이 판매량이 높았던 유아용 도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그림책의 장르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그림책 98권이다.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 4곳이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수합했다. 가장 먼저 연구자들은 최대한 많은 분석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조사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서점은 주간 베스트셀러만을 집계하여 발표하거나 최근 3년의 목록만을 제공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4곳의 온라인 서점을 선정했지만 이 중 한 서점이 2008년 이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08년 이후 목록만을 수합했다. 각 서점이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연구자들이 수정하여 분석대상을 확정했다. 온라인 서점이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최종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월간 베스트셀러만을 제공하는 서점의 경우 연구자들이 월간 목록에서 상위 40위에 해당되는 도서를 수합하여 해당 년도의 연간 목록을 작성했다.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한 서점이 상위 20위까지의 도서만을 발표했기 때문에 월간 목록의 상위 20권을 수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보다 많은 분석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았던 도서 40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각 서점의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확정된 다음 목록에서 “나도 사자가 무서워”와 같은 품질 그림책, 상업적인 유아용 도서, 영아용 그림책과 정보제공 도서를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영상물로부터 파생된 애니메이션 그림책(예: 디즈니 겨울왕국 무비스토리북), 스티커 북(예: 뽀롱뽀롱 뽀로로 에듀스티커북)이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예: 간단종이접기대백과)등이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두드려보아요”와 같이 단순한 내용이 반복되는 영아용 도서를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각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적어도 2곳 이상의 서점의 목록에서 올라 있는 도서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베스트셀러 목록이 각 해당 서점의 판촉 전략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스테디셀러 그림책을 분석한 김민정 등(2014)도 역시 각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해당 서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곳의 목록에만 올라 있는 도서를 제외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별 베스트셀러 목록 사이에 내재한 불일치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정된 도서가 모두 99권이었는데 이

중에는 “팔죽할멈과 호랑이”와 “팔죽할머니와 호랑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권의 그림책은 내용이 같은 전래동화이기 때문에 “팔죽할멈과 호랑이”를 제외하고 98권만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분석대상 그림책 98권을 그림책 중 국내 작가와 국내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그림책이 45권(45.9%)이었고 외국 작가의 그림책이 번역된 것이 모두 53권(54.1%)이었다.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된 국외 작가들은 영미권 출신이 42명 포함되어 있었고 일본 및 아시아권 작가가 11명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분석대상 그림책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생활동화가 31권(31.6%), 전래동화가 7권(7.1%), 지식동화가 15권(15.3%) 그리고 환상동화가 45권(45.9%)이었다. 이대균, 백경순, 송정원, 이현정(2013)은 동화를 과거로부터 전래된 이야기와 특정한 창작자에 의해 창작된 이야기로 구분하고 창작동화를 환상성과 사실성에 근거하여 환상동화와 사실동화로 구분했다. 환상동화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현실적, 마술적, 비현실적, 기적적인 인물, 사건, 물건”(서정숙, 최현주, 2014, p. 3)을 포함한 반면 사실동화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실동화는 다시 생활동화 지식그림책, 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동화는 유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관적”으로 다루는 반면 지식그림책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객관적”(이대균 등, 2013, p. 76)으로 기술한 것이다. 일부 전래그림책은 환상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나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점을 먼저 고려하여 전래동화로 구분했다. 이 때문에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는 전래동화로 반면 창작자가 분명한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환상동화로 분류했다. 한편, 서정숙과 최현주(2014)는 그림책의 장르가 학자들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장르 분류를 종합하여 환상 그림책, 사실 그림책, 정보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그림책을 구분한 바 있다. 비록 두 문헌에서 제시한 그림책 장르의 명칭이 상이하지만 각 장르에 포함되는 그림책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이대균 등이 제시한 장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분석대상 98권을 작가의 국적별 그리고 그림책 장르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유사하게 김민정 등(2014)도 그림책의 출판국가와 출판년도, 장르와 주제 등의 일반적 특성으로 스테디셀러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그림책은 논문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1〉 분석대상 그림책의 일반적 특성

작가국적별	생활	전래	지식	환상	계
국내	15 (15.3)	6 (6.1)	7 (7.1)	17 (17.3)	45 (45.9)
국외	16 (16.3)	1 (1.0)	8 (8.2)	28 (28.6)	53 (54.1)
	31 (31.6)	7 (7.1)	15 (15.3)	45 (45.9)	98 (100)

2. 분석준거

여러 연구자들은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

인적자원부, 2007; 김영옥 등, 2011; 김정원, 남규, 이정아, 2010). 이들이 제안한 다문화교육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문화, 정체성, 협력, 평등성, 협동, 공동체의식, 다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원 외(2010)는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관계증진, 다양성, 문화, 정체성, 편견, 평등성, 협력을 내용범주로 제시했다. 김영옥 등(2011)이 개발한 다문화교육활동 역시 문화, 협력, 정체성 형성, 평등성, 다양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조숙영(2013)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하면서 문화이해 및 수용, 관계형성, 정체성 형성, 공평성, 다양성을 범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김숙자와 김윤이(2011)는 문화, 협력, 정체성 형성, 평등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김숙자, 박세영(2011)의 다문화교육내용 분석준거를 그대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준거는 문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협력의 6가지 준거와 그에 따른 18개의 하위내용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 2과 같다.

<표 2> 다문화교육의 분석 준거 및 세부내용

내용준거	하위준거	세부내용
문화	문화에 관심 갖기	각 문화마다 고유한 명절, 춤, 음악, 옷, 음식, 주거방식, 미술과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 각 문화의 고유한 놀이, 음식, 전래동화를 경험한다. 각 문화의 역사와 위인에 대해 알아본다. 나라에는 상징이 있음을 이해한다. 직업과 역할을 이해한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한다. 성인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나라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를 수 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은 서로 같은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본다.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자신이 속한 문화를 소중히 여긴다. 나와 다른 문화를 소중히 여긴다. 위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는 태도를 가진다. 문화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알아본다.
	다양성 이해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본다.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한다.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사용한다. 다양한 특징과 형태를 탐색한다.
다양성	다양성 이해하기	친구와 나는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안다.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	서로 다른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안다.
	다양성 존중하기	나와 친구의 다른 점을 존중한다. 내가 잘하는 것과 친구가 잘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정체성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자신의 생각을 인식한다. 나의 감정을 느낀다. 나의 몸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자신과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우리 가족을 알아본다. 가족 간의 고유한 문화가 있음을 알고 존중한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과 그 역할을 알아본다. 가족의 역사를 알아본다. 우리 유치원의 역사를 알아본다.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우리나라의 역사, 고유한 명절과 상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전통음악, 전래동화, 전통놀이, 미술과 건축물을 경험해본다. 우리나라의 상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평등	평등 인식하기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안다.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 웃어른을 공경한다. 공공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태도를 형성한다. 다른 친구의 놀이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공평한 태도를 가진다. 예절바르게 생활한다.
반편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성, 외모, 인종, 계층, 장애 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비판한다.
	편견에 대처하기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한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한다.
	협동능력 갖기	친구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짐을 경험한다. 친구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공동체적 협력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알고 지킨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다른 사람과 물건을 나눈다.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시한다. 잘못 했을 때 사과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전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끼리 협력함을 이해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찾아본다.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세계 여러 나라의 협력과 지원을 알아본다. 생명체와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3. 분석과정

본 연구는 내용분석 연구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의 빈도를 중심으로 그림책을 분석한 연구이다. 빈도분석을 통해 98권의 그림책이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림책의 다문화교육 가능성 및 제한점을 그림책 내용의 질적 측면과 연관 지어 논

의했다. 분석은 2015년 3월 6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연구자 2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들은 관련 선행문헌을 검토하며 다문화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분석준거를 확정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자들은 유아용 도서 10권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함께 비교하며 분석준거의 타당성과 연구자 간의 일치도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도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다문화교육 내용의 요소가 나타나면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층 버스”의 버스 승객들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그려져 있었다. 이 경우 시각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다양성 이해하기”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표기했다. 한 권의 도서에 동일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여러 차례 나타나더라도 1회로 표기했고 서로 다른 다문화교육내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수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결과의 일치도 95%가 될 때까지 논의 및 협의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에서 출간된 유아용 그림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98권에 포함된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을 빈도가 높은 것부터 살펴보면 협력 관련 내용이 127건(27.8%), 정체성 관련 내용이 110건(24.1%), 문화 관련 내용이 91건(19.9%)과 다양성 관련 내용이 72건(15.8%) 순이다. 반편견과 평등에 관련된 내용은 각각 31건(6.8%)과 26건(5.7%)으로 다른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이를 다시 준거별 하위내용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 관련 내용 중 다문화에 관심 갖기가 50건(10.9%)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가 22건(4.8%),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19건(4.2%) 순으로 다루어졌다. 다양성의 하위내용 중 다양성 이해하기로 모두 37건(8.1%)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가 19건(4.2%), 다양성 존중하기가 16건(3.5%) 나타났고. 정체성 관련 하위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자아정체성 형성하기로 모두 55건(12.3%) 포함되었으며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33건(7.2%)과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22건(4.8%) 등이 뒤를 이었다. 평등 관련 내용 중 평등 인식하기가 16건(3.5%)으로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10건(2.2%)보다 많이 다루어졌으며 반편견 관련 내용 중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가 22건(4.9%)으로 편견에 대처하기 9건(2%)보다 많이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협력의 하위내용 중에서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가 47건(10.3%)으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졌고 협동능력 갖기 32건(7.0%),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19건(4.2%),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16건(3.5%),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가 13건(2.8%) 등이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내용이 각 내용의 준거별로 일부 하위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 관련 내용 91건 중 문화에 관심 갖기가 50건

(54.9%)을 차지했으며 다양성 관련 내용 72건 중 다양성 이해하기가 37건(51.4%), 정체성 관련 내용 110건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55건(50%), 평등 관련 내용 26건 중 평등 인식하기가 16건(61.5%), 반편견 관련 내용 중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가 22건(71%) 나타났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 127건(27.8%) 중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하위내용은 없었지만 협동능력갖기가 32건(25.2%) 그리고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37.0%)로 다른 하위내용에 비해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표 3〉 베스트셀러 그림책의 다문화교육내용 분석

내용준거	하위준거	빈도 (%)
문화	문화에 관심 갖기	50(10.9)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19(4.2)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22(4.8)
	계	91(19.9)
다양성	다양성 이해하기	37(8.1)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	19(4.2)
	다양성 존중하기	16(3.5)
	계	72(15.8)
정체성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55(12.3)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33(7.2)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22(4.8)
	계	110(24.1)
평등	평등 인식하기	16(3.5)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10(2.2)
	계	26(5.7)
반편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22(4.8)
	편견에 대처하기	9(2.0)
	계	31(6.8)
공동체적 협력	상호작용 능력 기르기	19(4.2)
	협동능력 갖기	32(7.0)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16(3.5)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	47(10.3)
	전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13(2.8)
	계	127(27.8)
계	457(100)	

2. 작가의 국적별 베스트셀러 그림책의 다문화교육 내용

작가의 국적에 따라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대상 중 국내작가의 그림책 45권에 포함된 다문화교육 내용은 모두 220건으로 한 권 당 평균 약 4.9건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작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은 정체성 관련 내용으로 63건(13.8%)이었고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이 61건(13.3%), 문화 관련 내용이 46건(10.1%), 다양성 관련 내용이 26건(5.7%), 반편견 관련 내용이 13건 (2.8%)과 평등 관련 내용이 11건(2.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작가의 베스트셀러에 포함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관련 내용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25건(5.5%)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22건(4.8%), 지역정체성 형성하기가 16건(3.5%)으로 뒤를 이었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의 경우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가 23건(5.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협동능력 갖기 14건(3.1%),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11건(2.4%),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8건(1.8%) 그리고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는 5건(1.1%)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 관련 하위내용 중 문화에 관심 갖기가 22건(4.8%)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21건(4.6%)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가 3건(0.7%) 나타났다. 다양성 관련 하위내용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다양성 이해하기로 모두 13건(2.8%)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 이루기와 다양성 존중하기가 각각 7건(1.5%)과 6건(1.3%) 다루어졌다. 반편견 관련 하위내용 중 편견인식하고 비판하기는 9건(2.0%) 그리고 편견에 대처하기는 4건(0.9%)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하위 내용 중 평등 인식하기가 7건(1.5%) 그리고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4건(0.9%) 나타났다.

<표 4> 작가의 국적별 다문화교육내용 빈도(%)

내용준거	하위준거	국내	국외	합계
문화	문화에 관심 갖기	22(4.8)/(44)	28(6.1)/(56)	50(10.9)/(100)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3(0.7)/(15.8)	16(3.5)/(84.2)	19(4.2)/(100)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21(4.6)/(95.4)	10(2.2)/(4.5)	22(4.8)/(100)
	계	46(10.1)/(50.5)	45(9.8)/(49.5)	91(19.9)/(100)
다양성	다양성 이해하기	13(2.8)/(35.1)	24(5.2)/(64.9)	37(8.1)/(100)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	7(1.5)/(36.8)	12(2.6)/(63.2)	19(4.2)/(100)
	다양성 존중하기	6(1.3)/(37.5)	10(2.2)/(62.5)	16(3.5)/(100)
	계	26(5.7)/(36.1)	46(10.1)/(63.9)	72(15.8)/(100)
정체성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25(5.5)/(45.5)	30(6.6)/(54.5)	55(12.0)/(100)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16(3.5)/(48.5)	17(3.7)/(51.5)	33(7.2)/(100)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22(4.8)/(100)		22(4.8)/(100)
	계	63(13.8)/(57.3)	47(10.3)/(42.7)	110(24.1)/(100)
평등	평등 인식하기	7(1.5)/(43.8)	9(2.0)/(56.3)	16(3.5)/(100)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4(0.9)/(40)	6(1.3)/(60)	10(2.2)/(100)
	계	11(2.4)/(42.3)	15(3.3)/(57.7)	26(5.7)/(100)
반편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9(2.0)/(40.9)	13(2.8)/(59.1)	22(4.8)/(100)
	편견에 대처하기	4(0.9)/(44.4)	5(1.1)/(55.5)	9(2.0)/(100)
	계	13(2.8)/(41.9)	18(3.9)/(58.1)	31(6.8)/(100)
공동체적 협력	상호작용 능력기르기	11(2.4)/(57.9)	8(1.8)/(42.1)	19(4.2)/(100)
	협동능력 갖기	14(3.1)/(42.8)	18(3.9)/(56.3)	32(7.0)/(100)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8(1.8)/(50)	8(1.8)/(50)	16(3.5)/(100)
	사회적기술 습득하기	23(5.0)/(48.9)	24(5.3)/(51.1)	47(10.3)/(100)
	전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5(1.1)/(38.5)	8(1.8)/(61.5)	13(2.8)/(100)
	계	61(13.3)/(48)	66(14.4)/(52)	127(27.8)/(100)
계	220(48.1)	237(50.8)	457(100)	

국외작가에 의해 집필된 동화 53권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은 모두 237건으로 한 권당 평균 4.47건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나타났다. 총 237건의 다문화교육 내용 중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이 66건(14.4%)으로 가장 비중이 높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정체성과 다양성 관련 내용이 47건(10.3%)과 46건(10.1%) 그리고 문화 관련 내용이 45건(9.8%)의 순으로 다루어졌다.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반편견 관련 내용은 18건(3.9%) 그리고 평등에 관련한 내용이 15건(3.3%)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외작가의 그림책에 포함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6건의 협력 관련 내용 중 사회적 기술 획득하기가 24건(5.3%)으로 가장 많았고 협동능력 갖기가 18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가 각각 8건(1.8%)씩 포함되어 있었다. 다양성 관련 내용 46건(10.1%) 중 다양성 이해하기가 24건(5.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 이루기가 12건(2.6%) 그리고 다양성 존중하기가 10건(2.2%) 나타났다. 또한, 정체성 관련 하위내용 중에서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30건(6.6%) 나타났으며 지역정체성 형성하기는 17건(3.7%) 나타났다.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의 경우 국외작가가 집필한 도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 45건(9.8%) 나타난 문화 관련 내용 중에서 문화에 관심 갖기는 28건(6.1%)이었고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가 16건(3.5%)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가 1건(0.2%) 나타났다. 반편견 관련 내용 18건(3.9%) 중에서 편견인식하고 비판하기가 13건(2.8%) 그리고 편견에 대처하기 5건(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등 관련 하위내용은 평등 인식하기가 9건(2.0%) 그리고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6건(1.3%)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적 협력을 제외한 문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등의 하위내용은 일부 하위내용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었다.

작가의 국적별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작가의 국적과 관계없이 반편견과 평등 관련 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비중 있게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은 작가의 국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 국내작가의 그림책은 정체성, 공동체적 협력, 문화, 다양성 순으로 다문화교육내용이 나타난 반면 국외작가의 그림책에는 공동체적 협력, 다양성과 정체성 그리고 문화 관련 내용의 순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 다양성 관련 내용은 26건(5.7%)으로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지만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는 46건(10.1%)으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작가의 국적별로 각 준거별 하위내용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준거의 하위내용 중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16건(3.5%) 나타난 반면 국내작가의 도서에서는 단 3건(0.7%)만 다루어졌다. 한편,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 21건(4.6%) 나타났으나 국외작가의 도서에서는 단 1건(0.2%)만 다루어졌다. 다양성 관련 하위내용의 경우 작가의 국적과 무관하게 다양성 이해하기가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와 다양성 존중하기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정체성 관련 하위내용 중 자아정체성과 지역정체성 형성하기는 작가의 국적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만 22건(4.8%)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 협력과 관련한 하위내용의 빈도는 작가의 국적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장르별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장르별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분석 그림책 98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환상동화로 모두 45권의 그림책에서 총 228건의 다문화교육내용이 다루어져 한 권당 평균 5.06건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장르는 생활동화로 모두 31권에서 161건의 다문화교육내용을 포함하는데 한 권당 평균 5.19건의 다문화교육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동화 장르 그림책 15권과 전래동화 장르 그림책 7권에 포함된 다문화교육내용은 각각 45건과 23건이었다. 이를 다시 한 권당 평균으로 살펴보면 지식동화 장르 그림책은 한 권당 3건 그리고 환상동화 장르 그림책 한 권당 3.3건의 다문화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장르별 그림책의 한 권당 평균 다문화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동화 그림책이 환상동화, 지식동화 혹은 전래동화보다 다문화교육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그림책 장르별 다문화교육내용 빈도(%)

내용준거	하위준거	생활	전래	지식	환상	계
문화	문화에 관심 갖기	20(4.4)/ (40)	6(1.3)/ (12)	4(0.9)/ (8)	20(4.4)/ (40)	50(10.9)/ (100)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8(1.8)/ (42.1)		2(0.4)/ (10.5)	9(2.0)/ (47.4)	19(4.2)/ (100)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10(2.2)/ (45.5)	5(1.1)/ (22.7)		7(1.5)/ (31.8)	22(4.8)/ (100)
	계	38(8.3)/ (41.8)	11(2.4)/ (12.1)	6(1.3)/ (6.6)	36(7.9)/ (39.6)	91(19.9)/ (100)
다양성	다양성 이해하기	10(2.2)/ (27.2)		7(1.5)/ (18.9)	20(4.4)/ (54.1)	37(7.4)/ (100)
	다양성과 통일성	3(0.7)/ (15.8)		2(0.4)/ (10.5)	14(3.1)/ (73.7)	19(4.2)/ (100)
	다양성 존중하기	5(1.1)/ (31.3)		4(0.9)/ (25)	7(1.5)/ (43.8)	16(3.5)/ (100)
	계	18(3.9)/ (25)		13(2.8)/ (18.1)	41(9.0)/ (56.9)	72(15.8)/ (100)
정체성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20(4.4)/ (36.4)		10(2.2)/ (18.2)	25(5.5)/ (45.5)	55(12.0)/ (100)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18(3.9)/ (54.5)		2(0.4)/ (6)	13(2.8)/ (39.4)	33(7.2)/ (100)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9(2.0)/ (40.9)	5(1.1)/ (22.7)		8(1.8)/ (36.4)	22(4.8)/ (100)
	계	47(10.3)/ (42.7)	5(1.1)/ (4.5)	12(2.6)/ (10.9)	46(10.1)/ (41.8)	110(24.1)/ (100)

평등	평등 인식하기	3(0.7)/ (18.6)	1(0.2)/ (6.3)	4(0.9)/ (25)	8(1.8)/ (50)	16(3.5)/ (100)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4(0.9)/ (40)	1(0.2)/ (10)		5(1.1)/ (50)	10(2.2)/ (100)
	계	7(1.5)/ (26.9)	2(0.4)/ (7.7)	4(0.9)/ (15.4)	13(2.8)/ (50)	26(5.7)/ (100)
반편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7(1.5)/ (31.8)		2(0.4)/ (9.1)	13(2.8)/ (59.1)	22(4.8)/ (100)
	편견에 대처하기	4(0.9)/ (44.4)			5(1.1)/ (55.6)	9(2.0)/ (100)
	계	11(2.4)/ (35.5)		2(0.4)/ (6.5)	18(3.9)/ (58.1)	31(6.8)/ (100)
공동체적 협력	상호작용 기르기	6(1.3)/ (31.6)	1(0.2)/ (5.3)	2(0.4)/ (10.5)	10(2.2)/ (52.6)	19(4.2)/ (100)
	협동능력 갖기	9(2.0)/ (28.1)	1(0.2)/ (3.1)	1(0.2)/ (3.1)	21(4.6)/ (65.6)	32(7.9)/ (100)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7(1.5)/ (43.8)			9(2.0)/ (56.3)	16(3.5)/ (100)
	사회적기술 습득하기	13(2.8)/ (27.7)	3(0.7)/ (6.4)	3(0.7)/ (6.4)	28(6.1)/ (59.6)	47(10.3)/ (100)
	전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5(1.1)/ (38.5)		2(0.4)/ (15.4)	6(1.3)/ (46.2)	13(2.8)/ (100)
	계	40(8.8)/ (31.5)	5(1.1)/ (39.4)	8(1.8)/ (6.3)	74(16.2)/ (58.3)	127(27.8)/ (100)
	계	161 (35.2)	23 (5.0)	45 (9.8)	228 (49.4)	457 (100)

환상동화로 구분된 그림책 43권에서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공동체적 협력에 관련한 내용으로 모두 74건(16.2%)이었고 정체성 관련 내용이 46건(10.1%), 다양성 관련 내용이 41건(9.0%), 문화 관련 내용이 36건(7.9%) 그리고 반편견 관련 내용이 18건(3.9%)과 평등 관련 내용이 13건(2.8%)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준거별 하위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적 협력 다문화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하위내용은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로 28건(6.1%)이 나타났고 협동능력 갖기 21건(4.6%),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10건(2.2%),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9건(2.0%) 그리고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가 6건(1.3%) 다루어졌다. 정체성 관련 내용의 경우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25건(5.5%)으로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정체성 형성하기와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가 각각 13건(2.8%)과 8건(1.8%)으로 뒤를 이었다. 다양성 관련 하위내용 중 다양성 이해하기가 20건(4.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와 다양성 존중하기가 14건(3.1%)과 7건(1.5%) 다루어졌다. 반면, 문화 관련 내용 총 36건(7.9%) 중 문화에 관심 갖기가 20건(4.4%),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가 9건(2.0%)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가 7건(1.5%) 나타났다. 반편견과 관련하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가 13건(2.8%), 편견에 대처하기가 5건(1.1%) 나타났으며 평등과 관련하여 평등 인식하기가 8건(1.8%),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5건(1.1%) 나타났다.

31권의 생활동화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 161건(35.2%) 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은 47건(10.3%) 나타난 정체성 관련 내용이었으며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 40건(8.8%), 문화 관련 내용 38건(8.3%), 다양성 관련 내용 18건(3.9%), 반편견 관련 내용 11건(2.4%), 평등 관련 내용 7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생활동화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을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관련 내용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20건(4.4%)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지역정체성 형성하기는 18건(3.9%)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가 9건(2.0%) 나타났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 40건(8.8%) 중 사회적 기술 획득하기가 13건(2.8%)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협동능력 갖기 9건(2.0%),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7건(1.5%), 상호작용 능력 기르기 6건(1.3%),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5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38건(8.3%)의 문화 관련 하위내용 중 문화에 관심 갖기가 20건(4.4%) 다루어졌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가 10건(2.2%)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가 8건(1.8%) 나타났다. 다양성 관련 내용에서는 다양성 이해하기가 10건(2.2%)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다양성 존중하기는 5건(1.1%),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는 3건(0.7%) 나타났다. 반편견 관련 하위내용 중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가 7건(1.5%) 포함된 반면 편견에 대처하기는 4건(0.9%) 포함되었고 평등 관련 하위내용 중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4건(0.9%) 나타난 반면 평등 인식하기는 3건(0.7%) 나타났다.

지식동화 장르에 속한 15권에 포함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은 다양성 관련 내용으로 13건(2.8%)이었으며 정체성 관련 내용은 12건(2.6%),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은 8건(1.8%), 문화 관련 내용은 6건(1.3%), 평등 관련 내용은 4건(0.9%) 그리고 반편견 관련 내용은 2건(0.4%)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성 관련 하위내용 중 다양성 이해하기는 7건(1.5%) 다루어졌으며 다양성 존중하기와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 이루기는 각각 4건(0.9%)과 2건(0.4%)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관련 하위내용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는 10건(2.2%)이었으며 지역정체성 형성하기는 2건(0.4%)이었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 8건(1.8%) 중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가 3건(0.7%)이었으며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와 상호작용능력 기르기가 2건(0.4%)씩 나타났으며 협동능력 갖기가 1건(0.2%) 나타났다. 문화 관련 다문화교육내용 중 문화에 관심 갖기는 4건(0.9%)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2건(0.4%) 포함되어 있었다. 평등 관련 내용 중 평등 인식하기만 4건(0.9%) 나타났고 반편견 관련 내용 중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만 2건(0.4%) 다루어졌다.

전래동화 그림책 7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은 문화 관련 내용으로 11건(2.4%) 나타났고 정체성과 공동체적 협력하기가 5건(1.1%)씩 나타나 뒤를 이었으며 평등 관련 내용이 2건(0.4%) 다루어졌다. 하지만 반편견 관련 내용은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래동화 그림책에 포함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래동화 그림책에 나타난 문화 관련 내용 중 문화에 관심 갖기는 6건(1.3%)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는 5건(1.1%) 다루어졌다. 하지만 문화 관련 하위내용 중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하위내용 중 사회적 기술 획득하기가 3건(0.7%) 나타났고 상호작용 기르기와 협동능력 갖기는 1번(0.2%)씩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동체의식 함양하기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증진하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체성 관련 내용 5건(1.1%)은 모두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내용이었으며 평등 관련 하위내용인 평등 인식하기와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1번(0.2%)씩 나타났다. 98권의 분석대상에 가장 적게 포함되어 있는 전래동화 그림책은 다문화교

육내용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 관련 하위내용 중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공동체적 협력 관련 하위내용 중 공동체의식 함양하기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증진하기 그리고 다양성과 반편견 관련 하위내용 전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유아용 그림책 98권을 대상으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김숙자, 박세영(2011)의 다문화 교육내용 6가지 범주-문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협력-를 분석을 위한 준거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그림책은 공동체적 협력(27.8%), 정체성(24.1%), 문화(19.9%) 및 다양성(15.8%)의 순으로 다문화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반편견(6.8%)과 평등(5.7%) 관련 내용은 매우 적게 다루고 있었다. 특히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내용이 각 준거의 일부하위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에 관심 갖기(문화 영역), 다양성 이해하기(다양성 영역), 자아정체성 형성하기(정체성 영역),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반편견 영역),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공동체적협력 영역)가 각 영역에서 과반을 넘는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작가의 국적별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은 국내작가의 그림책은 정체성(13.8%), 협력(13.3%), 문화(10.1%), 다양성(5.7) 등이 빈도가 높았던 반면, 국외작가의 그림책에는 협력(14.4%), 정체성(10.3%), 다양성(10.1%), 문화(9.8%) 관련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국외작가의 그림책은 국내작가의 그림책에 비해 다양성 관련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특히 다양성 이해하기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문화 관련 내용의 경우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으며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체성,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 협력의 관련 내용은 작가의 국적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만 다루었다.

셋째, 분석된 98권의 중 환상동화(49.4%)와 생활동화(35.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두 장르의 그림책은 다문화교육내용을 비교적 고르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환상동화로 구분된 그림책들은 공동체적 협력, 정체성, 다양성의 순으로, 생활동화 그림책은 정체성, 공동체적 협력, 문화의 순으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루었다. 지식동화에는 다양성, 정체성, 공동체적 협력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평등이나 반편견 관련 내용은 적게 나타났다. 전래동화 그림책은 문화, 정체성, 공동체적 협력 등이 자주 다루어진 반면 반편견 내용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빈도분석 결과에 나타난 베스트셀러 그림책들의 특징을 선정도서가 내포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 및 제한점과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스트셀러 그림책들이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내용이 일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림책이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내용은 일부 하위내용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분석결과는 그림책이 문화에 관심 갖기(문화 영역), 다양성 이해하기(다양성 영역), 자아정체성 형성하기(정체성 영역),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반편견 영역),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공동체적 협력 영역) 등 일부 내용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림책에 자주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에 관심 갖기’의 경우 우리 문화 혹은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묘사가 포함된 그림책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다양성 이해하기’는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등장인물 간의 인종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정체성 영역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요소 역시 분석대상인 그림책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유아 자신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의 전개로 인하여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의 편중성은 평등이나 반편견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는 작가의 국적별 혹은 그림책의 장르와 관계없이 나타난 불균형이었다. 특히, 분석대상 그림책은 평등과 반편견 관련 하위 내용 중 ‘평등 인식하기’와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를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나 ‘편견에 대처하기’에 비해 많이 다루고 있었다. 즉, 그림책은 행동의 의미 혹은 적극적인 실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을 비교적 적게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문헌에서도 발견된다. 김숙자와 박세영(2011)은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서의 다문화교육내용 중 반편견과 평등 관련 내용이 각각 9.1%와 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조숙영(2013)의 연구도 반편견과 평등 관련 내용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조숙영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다루어진 1050건의 다문화교육내용 중 공정성에 관련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분석 대상 그림책은 인종, 문화에 대한 편견, 불공평한 처우, 성, 외모 등에 관한 고정관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inger(2011) 역시 창작 그림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수준에 대체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작가의 국적이나 장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내그림책과 비교했을 때 국외그림책은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가시적인 다양성의 결과였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층 버스」, 「줄무늬가 생겼어요」 혹은 「시간상자」 등에는 여러 인종들의 모습과 행동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다양성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들 그림책에 등장하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은 주인공이나 사건의 배경으로만 등장할 뿐 인종 간 갈등의 요소나 문제성 인식의 단서로 제공되지 않았다. 게다가 분석된 그림책 중 유일하게 「눈오는 날」에서만 소수인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아동을 위한 다문화교육 개념을 담고 있는 양질의 문학작품(quality literature) 선정요건에 관한 연구에서 Smith-D'Arezzo(2003)는 단순히 소수자가 등장하는 책이 좋은 다문화 문학작품이 아님을 강조한바 있다. 즉, 좋은 아동문학작품은 소수자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그리며 아동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감정이입을 일으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소수자와 관련하여 긍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국내 베스트셀러 그림책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상황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형태에 기반하고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유아들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스테디셀러 그림책을 분석한 김민정 등(2014)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이들은 스테디셀러 그림책에 한국전통과 관련한 주제가 많은 것은 문화적 편안함과 함께 생활 속에서 겪는 익숙한 즐거움이 성인과 아동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석대상

동화에는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그린 「만희네 집」, 전통적 방식으로 명절을 지내는 「솔이네 추석이야기」를 비롯해서 대체로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가족을 중심으로 그린 국내작가의 그림책 대부분이 대가족으로 구성된 다분히 전통적 혹은 구시대적 가족을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동시에 이들 그림책은 이혼가정, 입양가정,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혹은 조부모 가정의 이야기 등 현대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사하게 윤갑정 등(2009)은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그림책이 다문화가정을 주류 혹은 외부자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소외, 불평등, 차별 등에 대한 사실적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eitzman, Eifler, Hokada 그리고 Ross(1972)의 고전적인 연구도 그림책이 독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그림책들은 주류의 시선과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그림책이 타문화 혹은 유색인종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에 근거하여 소수자들의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강조한다고 보고한 정대현과 박선미(200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했다. 이러한 경향은 작가의 국적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그림책에 비해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시각이 자주 발견되었다(김시내, 2003; 김주희, 1998). 이는 국내작가의 그림책 중 전통적 가치 및 선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전래동화가 포함되었고 생활동화 역시 전통적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성의 일생을 수탉이라는 환상요소로 그려내면서 힘, 권위로 상징되는 남성문화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동시에 여성으로 대변되는 암탉은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혹은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린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시선은 그림책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림책의 어머니들은 음식을 만들거나(「연이의 설맞이」, 「솔이의 추석이야기」),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이를 자녀에게 교육하는 역할(「집안 치우기」) 등 사적영역에서 전통적인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엄마가 화났다」와 같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모습과 동떨어진 어머니가 묘사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는 엄마’가 양육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자녀에 대한 감정을 묘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Dewitt, Cready 그리고 Seward(2013)은 과거에 비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림책에서 묘사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양육자라는 전통적인 시각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했다.

반면, 국외작가에 의한 그림책들에서 중상류층 백인 중심의 시각이 두드러졌다. 최종분석에 대상인 98권의 그림책에는 안소니 브라운의 작품이 13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그림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대부분은 백인이었으며 유색인종들은 단순한 배경인물로 묘사되거나 주변인으로 등장할 뿐이었다. Yoo-Lee 등(2014)과 Boutte 등(2008)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이 소수인종 집단에 대한 할 편견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구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그림책들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 중 상당수가 그림책의 시각적인 요소로 드러나는 문화 및 인종의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다문화 내용이 ‘누가 썼는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작가의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배경이 책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Nodelman, 2005). 즉, 특정 인종 혹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의 경우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관점을 대변하기 어려우며 기존 문화의 지배적 관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정지현, 박선미,

2009).

넷째, 베스트셀러 그림책은 다문화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은유와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다문화교육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림책들 중 잘 알려진 「종이봉지」, 「돼지책」, 「우리엄마」, 「우리아빠가 최고야」는 성편견 및 양성평등에 관한 주제를, 「이모의 결혼식」은 타인종과의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 및 화합의 개념을, 「틀려도 괜찮아」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길아저씨 손아저씨」는 장애인들의 능력과 협력 및 그들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담았으며, 「아씨방 일곱동무」는 바느질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의 의인화를 통해 그들 모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다양성 및 협력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고릴라가족」은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들이 가족을 이루는 과정을 숫자 일에서 열까지 연결하여 보여준 후, 마지막 페이지에 다양한 인종을 ‘모두 한 가족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제시하여 다양성, 공동체적 협력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은유와 비유를 통해 다문화교육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들은 인종, 성, 장애와 관련한 불평등, 편견 등과 같은 비판적인 주제를 유아들 자신이 중심이 되는 현실 이야기에서 다루기보다 동물 혹은 식물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환상동화 속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무지개물고기」는 여러 가지 색의 비늘로 치장된 아름다운 물고기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눈다는 친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무지개 물고기는 인종적으로 백인 혹은 사회의 주류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무지개 물고기가 느끼는 우울감과 이에 대한 다른 물고기들의 승배는 외모지상주의를 찬양하는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지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자신의 비늘을 나누어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의 구성은 갈등이 기득권을 가진 자의 배품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너는 어떤 씨앗이니?」는 다양한 종류의 씨앗이形形色색의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꽃으로 피는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이 그림책은 유아 개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징과 장점을 존중하는 유아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은유를 통해 강조한다. 「짧은 귀 토끼」 역시 외모와 생김새가 다른 토끼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지닌 신체상의 다름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문학적 능력을 가진 「프레드릭」이라는 쥐의 겨우살이 이야기는 제각기 다른 능력을 이용하여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주제를 노동 대 예술이라는 상반된 은유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아들이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 즉 픽션을 선호하고 이중 환상동화를 가장 좋아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김민정, 2003; 김민정 등, 2014; 김선옥, 윤정빈, 지은주, 유승희, 2006)이 보여주듯 분석대상 그림책 98권 중 45권이 환상동화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환상동화는 다른 장르의 그림책에 비해 비판적 측면의 다문화 교육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는 유아가 친근한 대상으로 여기고 쉽게 동일시하는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환상동화의 교육적 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선행문헌은 의인화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림책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Maccabe, Fairchild, Grauerholz, Prescosolido 그리고 Tope(2011)는 20세기에 출간된 그림책의 표지 등장인물과 주인공의 젠더를 분석하여 의인화된 동물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림책에서 불균형이 더 두드러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성차별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젠더가 불분명한 동물을 주인공으로 등

장시켰지만 창작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독자들이 의인화된 동물을 특정 젠더와 연결 지어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논의했다. 독자가 그림책 창작자들의 의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고 해석한다는 점은 그림책을 창작하고 선정하고 영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즐기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성인이 세심하게 그림책에 내재한 메시지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베스트셀러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나 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의 경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담았으나 이들 이야기가 주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배경이 되고 있어 오히려 특정 인종 및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위에서 논의한 「프레드릭」의 경우 예술적 삶의 풍요로움이라는 주제를 지닌 작가 레오 리오니의 철학이 담긴 내용을 담고 있으나(황순선, 2012), 메시지를 이해하는 유아의 능력에 따라 매우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즉, 가족들이 열심히 일할 동안 놀면서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는 주인공 쥐에 관한 이야기가 자칫 노력하지 않고 타인의 수고에 ‘무임승차’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책을 통한 영유아의 다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그림책을 통하여 인종이나 타문화에 대한 유아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김지선, 2008; 유향선, 2013; 현은자, 박성연, 2003) 타인의 조망수용능력(정상녀, 이현경, 민순옥, 홍현이, 2007)이나 친사회적 행동(문명희, 2014; 이계녀, 김용미, 2010) 등과 같은 사회성 발달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O'Neil(2010) 역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편견이 감소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그림책이 유아에게 다문화 및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거나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을 키우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림책을 기획, 창작, 출판, 유통하는 관련자 및 부모와 교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작가와 출판업자들은 그림책이 문화적 다양성에 위배되지 않는 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과 창작 과정에서부터 비판적 시각으로 그림책을 검토하는 노력과 함께 그림책이 출간된 이후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노력은 Yoo-Lee 등(2014)이 제안한 것처럼 그림책에 등장하는 소수집단에 속한 독자들의 반응을 청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그림책이 소수집단의 인물을 왜곡되거나 편향되게 그려 영유아 독자의 편견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을 영유아와 함께 경험하는 교사와 부모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우선 이들은 좋은 그림책을 선택해서 유아에게 제공해야 한다. 좋은 그림책의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의 문학성, 심미감, 객관성,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정지현, 박선미, 2009). 이는 성인이 그림책을 선정할 때 문학의 작품성 뿐 아니라 작품의 내용이 왜곡된 사실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현실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 살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성, 인종, 다른 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그림책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림책의 내용과 연관된 교육활동을 계획·시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곽영미, 현은자, 권영희, 이신애, 2014; Crisp & Hiller, 2011; Yoon, Simpson, & Hagg, 2010). 앞서 논의한 대로 「무지개물고기」나 「너는 어떤 씨앗이니?」는 표면적으로는 인종, 편견, 및 불평등의 개념

과 관련하여 이와는 무관한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의 해석과 시각에 따라 이들 그림책을 활용한 인종, 계층, 다양성, 권력과 관련한 다문화교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그림책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에 따라 독자는 그림책이 담고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착할 수도 놓칠 수도 있다. 그림책을 통한 다문화교육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Crisp와 Hiller(2011)이 주장한 것처럼 가장 먼저 교사들이 자신의 가치체계에 내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면하고 이를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아들은 매우 이른 시기에도 색, 인종, 성, 신체적 능력의 차이와 연관된 기득권이나 권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Derman-Sparks & Edwrad, 2010). 이들은 실제생활에서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언어적인 혹은 비언어적인 암묵적 메시지를 통해 인종, 성, 장애와 관련한 편견적 메시지를 내면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빈번하게 접하는 베스트셀러 그림책들은 성인의 신중한 지도와 안내가 병행된다면 유아로 하여금 인종주의(racism), 성차별주의(sexism), 장애차별(handicappism)을 비판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유아문학의 주요 교육적 목표와 기능 중 하나가 유아의 문학적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부모나 교사는 문학작품 속에서 주류문화가 소수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정상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유아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아로 하여금 문학 속에 내재된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학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정 기간 판매량이 많았던 98권의 그림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국내에서 출간된 그림책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그림책 중에는 본 연구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입장을 다룬 그림책은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조를 보여주지만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분석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그림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분석대상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그림책이 독자의 해석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영유아 독자가 그림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지 조사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그림책에 등장하는 소수집단의 내부자 시각에서 그림책을 분석하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소수집단에 대한 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문학적 표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곽영미, 현은자, 권영희, 이신애 (2014). 미국 다문화 그림책에 그려진 한국계 미국 어린이 이미지-한국계 미국 어린이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25-44.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사와 유아를 위한 유아사회교육 활동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영희 (2012). 국내 가족 그림책에 부수적 인물로 나타난 노인 인물 분석.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949-965.

- 김민정 (2003). 유아의 연령 및 선호하는 동화 장르에 따른 소망에 대한 믿음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현은자, 정지영 (2014). 한국 스테디셀러 그림책의 특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141-163.
- 김민진 (2013). 다문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다문화 교육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79-107.
- 김선옥, 윤정빈, 지은주, 유승희 (2006).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그림책 선호 경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291-318.
- 김숙자, 박세영 (2011).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서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내용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307-334.
- 김숙자, 박세영 (2011). 유아 환경동화에 나타난 환경교육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297-326.
- 김시내 (2003). 권장도서의 선정현황과 특성분석: 유아도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옥, 서현, 박형신, 정상녀, 윤경선, 박미나, 이나영 (2011). **유아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정원, 남규, 이정아 (2010).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고양: 공동체.
- 김정화, 김봉선, 강은진 (2009). 그림책에 나타난 장애인물 분석: 장애인물의 역량과 사회적 태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8(4), 99-115.
- 김주희 (1998).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선 (2008). 다문화도서를 통한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편견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은숙, 김세희 (2003). 어린이 문학교육을 위한 페러디그림책의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4(2), 99-116.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5). 2014년도 출판 현황. <http://www.kpa21.or.kr/>(출력일 2015년 6월 27일).
- 문명희 (2014). 다문화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유아의 편견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4), 157-180.
- 민경록 (2008).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페러디 그림책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자료집**, pp. 89-110.
- 서정숙, 정진 (2007). 한국 그림책에 나타난 조부모의 특성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8(2), 21-43.
- 선안나 (2010). 지난 10여년간 동화, 아동소설의 흐름과 장르문제. **아동청소년 문학연구**, 6, 7-32.
- 신세니, 조희숙 (2009a). 그림책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유아교육연구**, 29(5), 287-314.
- 신세니, 조희숙 (2009b). 비전통적 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책 분석: 주제를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8(3), 51-75.
- 유순이, 구태미, 윤재희 (2014).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소개된 동화에 표현된 젠더에 관한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8(3), 453-475.
- 유향선 (2013).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및 인종편견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137-164.

- 윤갑정, 지은주, 이해은 (2009). 다문화 그림책에 대한 내용분석 및 유아반응: 국내 다문화가정을 반영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45-72.
- 이계녀, 김용미 (2010). 다문화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만3세 유아의 반편견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3), 159-174.
- 이대균, 백경순, 송정원, 이현정 (2013). **유아문학교육**. 공동체: 고양.
- 정대련 (2005).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유아그림책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6(1), 23-44.
- 정상녀, 이현경, 민순옥, 홍현이 (2007). 다문화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활동이 유아의 타인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pp. 704-705.
- 정지현, 박선미 (2009).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그림책 분석: 인종과 타문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8(1), 91-118.
- 조숙영 (2013). 3-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활동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4), 379-400.
- 현은자, 박성연 (2003).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3(2), 101-124.
- 현은자, 장혜미 (2011).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노인 등장인물 분석. **유아교육연구**, 31(2), 189-206.
- 황순선 (2012). 레오리오니 우화그림책에 나타난 예술적 창의성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30, 27-36.
- Baker-Sperry, L., & Grauersholz, L. (2013). The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feminine beauty ideal in children's fairy tales. *Gender & Society*, 15(5), 711-726.
- Bishop, R. S. (1997). Selecting literature for a multicultural curriculum. In V. J. Harris (Eds.), *Using multiethnic literature in the K-8 classroom* (pp.1-20). Norwood, MA: Christopher-Gordon.
- Boutte, G. S., Hopkins, R., & Waklatsi, T. (2008). Perspectives, voices, and worldviews in frequently read children's book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9(6), 941-962.
- Campbell, S. (2010). Windows and mirrors: A case for more multi cultural children's books on Illinois children's choice award lists. *Illinois Reading Council Journal*, 38(4), 33-38.
- Crisp, T., & Hiller, B. (2011). "Is this a boy or a girl?" : Rethinking sex-role representation in Caldecott medal-winning picturebooks, 1938-2011.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42, 196-212.
- Derman-Sparks, L., & Edwards, J. O. (2010). *Anti-bia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ourselve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Dewitt, A. L., Cready, C. M., & Seward, R. (2013). Parental role portrayals in twentieth century children's picture books: More egalitarian or ongoing stereotyping? *Sex Roles*, 69, 89-106.
- Mccabe, J., Fairchild, E., Grauerholz, L., Prescosolido, B. A., & Tope, D. (2011). Gender in twentieth-century children's books: Patterns of disparity in titles and central characters. *Gender & Society*, 25(2), 197-226.
- Mendoza, J., & Reese, D. (2001). Examining multicultural picture books for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Possibilities and pitfalls. *Early Childhood Research & Practice*, 3(2). Retrieved from <http://ecrp.uiuc.edu/v3n2/mendoza.html>.

- Morgan, H. (2009). Picture book biographies for young children; A way to teacher multiple perspective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 219-227.
- Nodelman, P. (2005). The pleasure of children's literature,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김서정 옮김). 서울: 시공주니어(원판 1996).
- O'Neil, K. (2010). Once upon today: Teaching for social justice with postmodern picturebook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41, 40-51.
- Roper, E., A., & Cliftobn, A. M. (2013). The representation of physically active girls in children's picture book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s*, 84, 147-156.
- Singer, A. E. (2011). A novel approach: The sociology of literature, children's books, and social ine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 10(4), 307-302.
- Sipe, L., & Pantaleo, S. (2010). 포스트모던 그림책 (조희숙 역). 파주: 교문사. (원저 2008출간)
- Smith-D' Arezzo, W. M. (2003). Diversity in children's literature: Not just a black and white issue.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34(1), 75-94.
- Yoo-Lee, E., Fowler, L., Adkins, D., Kim, K., & Davis, H. N. (2014). Evaluating cultural authenticity in multicultural picture books: A collaborative analysis for diversity education.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84(2), 324-347.
- Yoon, B., Simpson, A., & Haag, C. (2010). Assimilation ideology: Critically examining underlying messages in multicultural literatur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4(2), 109-118.
- Weitzman, L. J., Eifler, D., Hokada, E., & Ross, G. (1972). Sex-role socialization in picture books for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6), 1125-1150.

<별첨1> 분석대상 그림책 목록

	그림책 제목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사	초판출간
1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2009
2	강아지똥	권정생	정승각	길벗어린이	1996
3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이성실	이태수	다섯수레	2001
4	갯벌이 좋아요	유애로	유애로	솔거나라	1995
5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강경수	시공주니어	2011
6	고 녀석 맛있겠다	미야시니 타츠야	미야시니 타츠야	달리	2004
7	고릴라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비룡소	1998
8	고릴라 가족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2
9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희	권윤희	창비	2005
10	곤지곤지 짹짹	최숙희	최숙희	푸른숲주니어	2013
11	곰 사냥을 떠나자	마이클 로센	헬렌 옥스버리	시공주니어	1994
12	괜찮아	최숙희	최숙희	웅진주니어	2005
13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모리스 샌닥	시공주니어	1994
14	구름빵	백화나	백화나	한솔수북	2004
15	기분을 말해 봐!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1
16	길 아저씨 손 아저씨	권정생	김용철	국민서관	2006
17	까만 크레파스와 요술기차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웅진주니어	2005
18	나는 기다립니다	다비드 칼리	세르주 블로크	문학동네	2007
19	나와 너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0
20	난 싫다고 말해요-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책	베티 뷔거홀드	기와히라 마리오	북뱅크	2006
21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국민서관	2001
22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임정자	김영수	아이세움	2006
23	내가 정말?	최숙희	최숙희	웅진주니어	2011
24	너는 기적이야	최숙희	최숙희	책 읽는 곰	2010
25	너는 어떤 씨앗이니?	최숙희	최숙희	책 읽는 곰	2013
26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케이도	세르지오 미르타네즈	야기정수의 날개	2002
27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베르너 홀츠바르트	베르너 홀츠바르트	사계절	1993
28	눈 오는 날	에즈라 잭 키즈	에즈라 잭 키즈	비룡소	1995
29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리그스	레이먼드 브리그스	마루별	1997
30	달 사베트	백화나	백화나	스토리볼	2014
31	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	사토 와키코	사토 와키코	한림	1991
32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이호백	재미마주	2000
33	도서관	데이비드 스펠	시라 스텐버트	시공주니어	1998
34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두슨	케빈 호크스	웅진주니어	2007
35	도토리 마을의 빵집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웅진주니어	2012

36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1
37	떡보떡보 호랑이	이진숙	이작은	한솔수북	2007
38	똥벼락	김희경	조혜란	사계절	2001
39	마당을 나온 암탉	황산미	오돌또기	사계절	2011
40	만희네 집	권윤희	권윤희	길벗어린이	1995
41	모르는 척 공주	최숙희	최숙희	책 읽는 곰	2012
42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마르쿠스 피스터	시공주니어	1994
43	미술관에 간 윌리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0
44	바빠요 바빠	윤구병	이태수	보리	2000
45	밥 한 그릇 똑딱!	이소을	이소을	상상박스	2009
46	빈 화분	데미	데미	사계절	2006
47	사윗감 찾아나선 두더지	김향금	이영원	보림	1996
48	선인장 호텔	브렌다 가버슨	매건 로이드	마루별	1995
49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층 버스	마이클 스미스	마이클 스미스	사파리	2013
50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이호백	이역배	재미마주	1994
51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채인선	이역배	재미마주	1998
52	손톱 깨물기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08
53	술이의 추석 이야기	이역배	이역배	길벗어린이	1995
54	시간 상자	데이비드 워즈너	데이비드 워즈너	베틀북	2007
55	십심해서 그랬어-여름	윤구병	이태수	보리	1997
56	싸워도 돼요?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13
57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	올프 스타르크	에바 에릭슨	크레용하우스	2002
58	아씨방 일곱동무	이영경	이영경	비룡소	1998
59	안 돼, 데이빗!	데이빗 새논	데이빗 새논	지경사	1999
60	안녕, 친구야	강풀	강풀	웅진주니어	2013
61	앗! 따끔!	국자승	국자승	시공주니어	2009
62	앤서니 브라운의 마술 연필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0
63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4
64	어떡하지?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3
65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로버트 먼치	로버트 먼치	북뱅크	2000
66	엄마, 언제부터 날 사랑했어?	앤니 아고피앙	클레르 프라네크	문학동네	2009
67	엄마가 화났다	최숙희	최숙희	책 읽는 곰	2011
68	연이네 설맞이	우지영	윤정주	책 읽는 곰	2007
69	오른발, 왼발	토미 드 파올라	토미 드 파올라	비룡소	1999
70	우리 몸의 구멍	허은미	이혜리	길벗어린이	2001
71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킨더랜드	2007
72	우리 엄마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5
73	우리는 친구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8

74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선현경	비룡소	2004
75	입이 뚱꼬에게	박경효	박경효	비룡소	2008
76	작은 집 이야기	버지니아 리 버튼	버지니아 리 버튼	시공주니어	1993
77	장수탕 선녀님	백하나	백하나	책 읽는 곰	2012
78	장화신은 고양이	프레드 마르셀라노	사틀 페로	시공주니어	1995
79	제주꾼 오 형제	이형진	이미애	시공주니어	2006
80	종이 봉지 공주	로버트 먼치	마이클 마르첸코	비룡소	1998
81	줄무늬가 생겼어요	데이빗 새논	데이빗 새논	비룡소	2006
82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존 버닝햄	비룡소	1996
83	지하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2010
84	집 안 치우기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10
85	짧은 귀 토끼	다원시	탕탕	고래이야기	2006
86	충치 도깨비 달달이와 콧뎀이	안나 라셀만	안나 라셀만	현암사	1994
87	칭찬 먹으러 가요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10
88	콧구멍을 후비면	사이토 타카코	사이토 타카코	애플비	2006
89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	제인 다이어	책 읽는 곰	2008
90	터널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논장	2002
91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하세기와 토모코	토토북	2006
92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조대인	최숙희	보림	1997
93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레오 리오니	시공주니어	1999
94	해치와 괴물 사형제	한병호	정하섭	길벗어린이	1998
95	행복한 의자나무	량수린	량수린	북뱅크	2002
96	행복한 청소부	모나카 페트	안토니 보라틴스키	플빛	2000
97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안미연	서희정	상상스쿨	2008
98	황소 아저씨	권장생	정승각	길벗어린이	2001

ABSTRACT

Ninety-eight bestselling children's picture books from 2008 to 2014 were analyz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criteria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d Culture, Diversity, Identity, Equity, Anti-bias, and Cooperation that were drawn from Kim & Park (2011). An examination of the books revealed that they contained concepts of Cooperation, Identity, Culture, and Diversity in their orders of frequency while ideas of Equity and Anti-bias were barely depicted.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translated books were found. Translated picture books reflected Diversity more frequently than domestic ones. Under a criterion of Culture, Recognizing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as more frequently portrayed in translated books while Respecting for Cultures was more frequently found in domestic ones.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bestselling picture books' limitations of dealing with critical multicultural issues, domestic picture books' lack of reflection of changing multicultural realities, fantasy picture books' dealing with critical multicultural issues through metaphors, and possible problems of the books conveying biased or confusing messages. It was suggested that an adult's role is essential when the bestselling literature is used for the purpo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ir deliberate guidance can help young children engaged in critical issues of race, gender, and ability and develop their multicultural sensitivities through literature.

▶ *Key Words* : bestselling picture books, multicultural concepts, multicultural education

논문투고	2015. 05. 15.
수정원고접수	2015. 07. 02.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